

지역 소식통

고창군-전북연구원
현안 사업 대응 맞손

고창군과 전북연구원이 6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고창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논리를 점검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삼양염업사 해리지점 활용 방안 △명사십리 해양관광레저파크 조성사업 △신림저수지 개발 활용 방안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추진 △드론과 연계한 UAM 기반 구축 및 실용화 방안 등 5개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베리&바이오식품연
김치산업 발전 포럼 열어

배추와 무 등 김치 속재료의 국내 최대 산지인 고창군이 차별화된 김치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6일 고창군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고창군 신재효관 소리공일 세미나실에서 고창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고창 맞춤형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김치산업 플랫폼 구축 및 지속가능한 비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고창군 식품 관련 기업 및 김치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회권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장이 '고창군 김치소재 생산 현황과 R&D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고창군은 김치의 속재료인 배추와 무, 전일영의 국내 최대산지다. 고창군과 연구소는 '맞춤형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도비 10억을 포함해 총 2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후 포럼에선 고창 김치산업 발전 전략과 김치 발효에 의한 건강 기능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읍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최

권익현 군수, "예산 삭감 방지·추가 증액 확보 혼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등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국회 설득 강행군을 이어갔다.

권익현 군수는 6일 국회를 찾아 삼석 예산결산위원장, 강훈식 예정위 간사, 안규백 의원, 이개호 의원을 만나 부안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를



6일 국회를 방문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강훈식 국회 예정위 간사(사진 왼쪽)를 만나 부안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를 구했다.

구했다.

현재 부안군 주요 건의사업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198억)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117억) △백석지구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74억) △반계유형원 기념관 건립(60억) △겨포 여객선터미널 신축(100억) 등이다.

특히,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은 부안군의 세계적 지질지원의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방식을 홍보,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달 7~8일에도 국회를 찾아 이상현·김윤덕·소병훈·안호영·유동수·허영·강훈식·김교홍·김민기·박정·서병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국회 의결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동원해 주요 핵심사업 예산의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성 기자

개선 방안 제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6일 제 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해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자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항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도형·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현월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이만재·황해숙·최재기·오명제·오승현·한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제3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자금 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6개 사업, 30억원 확보

군민 안전·지역 현안 해결 발판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안전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찾아가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6억원)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3

억원)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개축 및 리모델링(4억원) △고수농공단지 노후 옹벽 정비공사(6억원) △갈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7억원) △상하면 용두 배수갑문 보강사업(4억원)으로 총 6개 사업에 3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고창읍 읍내리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연면적 3,500㎡ 규모의 장애인체육관과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사회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수농공단지 노후 옹벽 정비공사'

는 1990년도 준공된 고수농공단지 내 노후된 옹벽을 정비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첨단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도 안전한 생산환경을 보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고창군 사회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및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고, '갈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상하면 용두배수갑문 보강사업'으로 집중호우 대비 주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군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치유농업 활성화 기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농업·농촌자원을 통해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과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치유농업의 기본구상과 활성화를

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정읍시 치유농업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5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치유농업 중심지 육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는 천사히어로즈 2층 실내 휴게공간에서 겨울철 특별 프로그램을 오는 23일까지 선보인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체험프로그램 공연

23일까지 2층 휴게공간서

정읍시가 도내 최대 실내놀이시설인 천사히어로즈를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오는 23일까지 선보인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천사히어로즈 2층 실내 휴게공간에서 겨울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23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1~4시까지 3타임으로 나눠 켈리퍼라워,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된다.


또한 매주 토요일 정오에는 풍선, 마술, 버블쇼, 샌드아트, 매직레이저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23일에는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로 플라로이드 사진찍기 등을 겨울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프로그램 접수는 시 홈페이지 체험프로그램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월~금)와 현장 접수(선착순)로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공연은 신청 없이 즐길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